

## 번역서와 비번역서의 문장 및 절의 길이 비교 연구: 아동 대상 번역서를 중심으로

성 승 은  
(한국외대)

### 1. 서론

본고는 아동<sup>1)</sup>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의 가독성<sup>2)</sup>을 비번역서와 비교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승은(2010: 155-177)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ST(source text, 출발어)에 대해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와 성인 대상 번역서를 비교한 결과, 아동 대상 번역서에서는 문장을 유의하게 더 분할하고, 문장 구조를 유의하게 더 단순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는

- 1) 본고에서 논의하는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2) 가독성(readability)은 글의 읽기 쉬운 정도를 가리킨다. 필체, 인쇄된 활자의 읽기 쉬운 정도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김기중, 1993, pp. 17-18). ‘독이성(讀易性)’, ‘이독성(易讀性)’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가독성’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하며, 시각적인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ST의 문장이 21개 단어 이상이 될 경우 아동대상 번역서는 성인대상 번역서 대비 약 2.2배 문장을 더 분할하였다. 또한 아동대상 번역서에서는 ST에서 주절-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의 주종 관계가 끊어져서 문장구조가 단순화되는 경우가 1.6배 더 많았다.

이처럼 아동 대상 번역서는 문장 길이 및 구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아동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 고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는 성승은(2010)에서 논의한 아동 대상 번역서를 국어 교과서와 비교하여 문장 및 절<sup>3)</sup>의 길이를 중심으로 가독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동에게 수용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번역 텍스트를 읽히고 이해 정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관련되는 여러 변수의 통제가 쉽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어 교과서와의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본고의 아동 독자의 연령은 약 11-14세이며 고찰 대상 번역서는 이들 연령대를 주독자로 설정한 영미명작<sup>4)</sup>의 완역이다. 비교대상 비번역서는 동일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국어 교과서 중에서 소설로 제한하여 번역서의 텍스트 타입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장은 긴 문장, 긴 수식절(김기중 1993: 127-128), 표준 어순에서의 이탈(김영진 1995: 22; 김기중 1993: 125)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문장 및 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문장이 길다고 해서 모두 문장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예1)

얼마 동안은 모두들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3) 본고에서의 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유현조 2008: 17).

절— 주절

내포절-명사절, 관형절, 인용절, 부사절

접속절-대등접속절, 종속접속절

4) 본고에서 영미명작은 세계명작 혹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문학작품 중 영미권에서 영어로 쓰인 작품으로 한국 독자에게도 비교적 널리 읽혀온 소설을 지칭한다.

엄소는 뒷발질하고,  
 송아지는 쿵쿵거리고,  
 닭들은 파닥거리고,  
 양은 매애거리고,  
 돼지는 배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개는 고양이를 못살게 굴고,  
 고양이는 토끼를 쫓아다니고,  
 꼬마들은 싸움을 하고,  
 배가 기우똥……  
 그래서 모두들 물속으로 풍덩 빠져 버렸지. (시공사 1996)<sup>5)</sup>

위의 그림책의 예는 문장 길이가 길지만 그 안의 절을 보면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책에서는 이러한 예의 빈도가 극히 낮을 것이다. 문장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흔히 말하는 것은 문장이 길어지면서 그 안의 절도 많아지고 또 길어지면서 결합되는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Beaman 1984: 45; Cutts 1995: 11; 김기중 1993: 117-128).

(예2)  
 머리말에 나온 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들과 연결되어, 큰 파도와 물보라가 치는 바다에 홀로 떠있는 바위나 쓸쓸한 바닷가에 좌초된 난파선, 차갑고 파리한 달이 막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로 엿보고 있는 풍경에 의미를 더해 주었다. (시공주니어 2005: 15)

위 예문에서는 ‘바위’, ‘난파선’, ‘풍경’ 앞에 각 관형절이 이들 명사를 꾸며 주고 있다. 관형절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예1)과 같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지만, (예2)의 문장 이해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처럼 문장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의 절도 많아지고 그 결합관계도 복잡해지는

5) 아직 출간되지 않은 ‘한국연구재단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의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에서는 번역서의 예시를 소개할 때 번역자 이름 대신 출판사와 연도를 지칭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번역자와 편집자, 출판사의 공동 작업을 인정하는 접근법이라고 판단된다(이상원 2011: 50). 본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 출판사와 연도를 기재하기로 한다.

경우가 많다.

## 2. 통사적 복잡성과 아동의 구문 이해

### 2.1 통사적 복잡성과 관련된 번역 연구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문장의 길이와 구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김기중 1993: 68-81, Scott & Stokes 1995: 310-311). 물론 문장 내에 사용된 어휘 및 개념, 문맥, 배경지식 등 여타 요인도 관여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장 자체의 길이 및 그 안의 절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글의 가독성이나 난이도를 측정하는 공식 및 지수가 산출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동대상 텍스트의 난이도 산출에 널리 사용되는 리드(READ) 지수나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렉사일 지수(Lexile Measures)는 의미상의 어려움과 구문의 복잡성의 두 가지로 난이도를 측정하는데, 구문의 복잡성은 문장의 길이로 측정된다(www.natmal.com, www.lexile.com).

문장 구조의 복잡성을 논한 연구 중 임성규는 문장의 난이도는 문장의 구조 밀도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문장의 구조 밀도는 한 문장에 참여하는 절의 수와 절들의 결합 관계, 그리고 한 문장의 명제를 표시하는 어휘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1993: 276). 임성규에서는 텍스트에서 문장의 형식적 가치와 내용적 가치를 계산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ibid. 277).

문장의 형식적 가치

- a) 각 문장의 평균 절 수 = 절의 수 ÷ 문장의 수
- b) 각 절의 평균 길이 = 전체의 어휘 수 ÷ 절의 수

문장의 내용적 가치

- c) 각 정보 단위<sup>6)</sup>의 평균 길이 = 절의 수 ÷ 주절의 수

6) 정보 단위는 각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의미 단위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주절(A)과 이 주절에 매여 해석되는 종속절의 수의 합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주절에 매여 해석되는 종속절의 수가 많음을 뜻한다. 이것은 절의 양은 반영하지만

- d) 각 절의 평균 정보 가치 = 절의 전 가치[(A의 수×1) + (B의 수×2) + (C의 수×3)+ (N의 수×n)] ÷ 절의 수  
(A: 의미상 주절. B: 의미상 A의 종속절. C: 의미상 B의 종속절  
.....)

위의 문장의 난이도 산출 방식은 문장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다룬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 임성규는 국어, 사회, 도덕 등 각 학년의 교과서의 난이도 평균을 구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텍스트 전체의 난이도의 평균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학 텍스트에서는 저자 혹은 역자에 따라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텍스트 일부에서 문장이나 절이 지나치게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장의 길이, 절의 길이 및 그 수와 결합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사적 복잡성에 관여한다.

이제 통사적 복잡성과 관련된 번역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김한식(2007: 72-82)은 가독성<sup>7)</sup>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장 길이를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의 신문기사의 문장 길이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문기사의 한일 번역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김한식(2009)는 문장 구조의 복잡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고 한일 신문기사 번역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는데, 한 문장 안에 쓰인 동사가 많을수록 문장 구조가 복잡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관형절의 처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며 “관형절의 분리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구문을 바꾸었을 때 크게 향상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14). 즉, 관형절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문장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문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한국어에서 문장 처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이해가 용이함을 주장하는 김영진, 조명한(1981: 16)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주절에 매이는 종속절 간의 종속 정도는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것이 d)이다(ibid. 278).

7) 김한식(2007)에서 실제로 사용된 술어는 ‘독이성’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의 가독성 및 통사를 논한 연구로 Puurtinen(1997), 신지선(2005) 등이 있다.

Puurtinen(1997: 327-332)은 번역서에서는 비번역서에 비해 비정형동사 구조(non-finite construction)<sup>8)</sup>가 더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영어-핀란드어 아동문학 번역서와 비번역서에서 이 구조의 빈도를 비교하고 있다<sup>9)</sup>. 분석 결과 번역서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구조가 더 많이 사용되어서 가독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선(2005: 79-108)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를 주독자로 하는 영한 그림책 번역에서 긴 문장이 나뉘어서 번역되었음을 고찰하고, 영어 원문에서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분사구문, 관계사, 부사구로 이어진 문장이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나뉘어서 번역되었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어린 아동이 즐겁게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이 문장을 나누어서 번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과 같은 어린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비교적 확고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본고의 대상 연령인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연령대 아동의 구문 이해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아래에 살펴보자.

## 2.2. 아동의 구문 이해

아동문학 관련 문헌에서는 아동을 위해 글을 쓸 때는 문장을 적당한 길이로 짧게 끊어서 쓸 것을 주장한다(임원재 2000: 226-230; 한혜선 2000: 61; 김신연, 최재선 2001: 119).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혹은 연령별로 언급한 국내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김봉순(2002: 245-246)은 구문 연구를 비롯하여 표현력, 이해력 등의 발달 연구가 학령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우 단편적인 연구만 있다고 언급한다. Scott & Stokes(1995: 310-313)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있다. 학령기 이전 아동의 통사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는 해당 연령대의 언어

8) 비정형동사(non-finite verb)란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가리키며(문용 2008: 57) 비정형동사 구조는 이러한 동사가 포함된 문장구조이다. 정형동사는 동사가 시제, 인칭에 따라 굴절한다.

9) 이 연구의 대상 연령은 약 7-12세이다(ibid. 326).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비교적 확립되어 있는 데에 비해, 학령기 아동의 통사 발달은 관련 연구가 훨씬 적고 널리 사용되는 척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학령기 아동의 통사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문장 길이, 절의 밀도 및 좌분지 종속절 등 특정 문장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이성은(2003: 31)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년이 되면 절반 정도의 아동이 ‘비록...일지라도’와 같은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고,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이 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해력과 표현력 발달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해하는 만큼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김봉순 2002: 288-289).

오웬스는 아동은 학령기를 거치며 접속과 내포의 이해와 산출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접속사 *because*는 학령기의 비교적 초기에 산출되지만 10-11세 이후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화용론적인 요인도 접속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unless*와 같이 말하는 이의 불확실성과 부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접속사는 13-15살이 되어야 정확하게 이해한다(이승복, 이희란 옮김 2005: 525-527).

출판기획자 최광렬은 청소년을 위한 글에서는 단순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2003: 225). 그가 대상으로 한 연령층은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을 중학생 이상으로 볼 경우, 본 연구의 대상 연령도 청소년의 연령과 일부 겹치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복잡한 문장 구조는 학령기 아동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길이가 긴 문장과 절의 결합 관계가 복잡한 구조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론

#### 3.1. 연구대상 텍스트

본고의 분석대상 번역서와 비번역서 각각의 전체 어절<sup>10)</sup> 수는 아래 <표

10) 띄어쓰기의 단위를 말한다.

1>, <표 2>과 같이 동일하며, 텍스트의 처음부터 일정 부분까지 대화 부분을 제외하고 추출하였다. 번역서는 출판사를 통해 주 대상독자의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약 중 1,2학년으로 확인된 영미명작의 원역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의 목적이 성승은(2010)의 영미명작 원역을 비번역서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번역서의 텍스트는 성승은(2010)의 아동대상 번역서와 동일하다. 대상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번역서와 원역이 아닌 번역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각 번역서 모두 역자를 다르게 선정하였으며, 2000년 이후의 출판물만 포함하였다. 비번역서는 동일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로 선정하였으며, 번역서와 텍스트 타입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내용 중 소설 텍스트만 추출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체를 통일하고자 합쇼체로 쓰인 소설은 제외하였다. 국어 교과서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접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서 분석대상 비번역서로 정하게 되었다.

<표 1> 비번역서 분석대상 어절 수

학년	분석대상 어절수
초등학교 5학년 (2009) 저작권자: 교육기술과학부, 편찬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225
초등학교 6학년 (2009) 저작권자: 교육기술과학부, 편찬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124
중학교 1학년 (2010) 지은이: 노미숙 외 10인, 발행인: 천재교육.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함.	4272
중학교 2학년 (2010) 저작권자: 교육기술과학부, 편찬자: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4303
합	16,924

〈표 2〉 번역서 분석대상 어절 수

도서명	분석대상 어절수
톰 소여의 모험 (최인자 역, 웅진닷컴, 2003)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Mark Twai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590
톰 소여의 모험 (지혜연 역, 시공주니어, 2005)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Mark Twain,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574
제인 에어 (햇살과 나무꾼, 시공주니어, 2005) Jane Eyre, Charlotte Bronte, The New American Library, 1964.	1582
보물섬 (정영목, 비룡소, 2003) The Treasure Island, Robert Louis Stevenson, Puffin Books, 1994.	1568
보물섬 (안인희 역, 마루벌, 2009) The Treasure Island, Robert Louis Stevenson, Puffin Books, 1994.	1362
크리스마스 캐럴(김영진 역, 비룡소, 2003) A Christmas Carol, Charles Dickens, Weathervane Books, 1977.	1593
크리스마스 캐럴(김난령 역, 시공주니어, 2003) A Christmas Carol, Charles Dickens, Weathervane Books, 1977.	1567
로빈슨 크루소 (김영선 역, 시공주니어, 2007) Robinson Crusoe, Daniel Defoe, Norton, 1975.	1602
키다리 아저씨 (이주령 역, 비룡소, 2003) Daddy-Long-Legs, Jean Webster, Puffin Books, 1995.	1605
빨간 머리 앤 (김경미 역, 시공주니어, 2002) Anne of Green Gables, Lucy Maud Montgomery, Bantam Books, 1998.	1509
작은 아씨들 (공경희 역, 시공주니어, 2007) Little Women, Louisa May Alcott, Everyman's Library, 1970.	1372
합	16,924

### 3.2. 연구대상 절

본고에서의 고찰 대상 절은 관형절, 명사절, 인용절, 부사절 및 접속절이다. 서술절은 이중 주어로 보아 제외한다(cf. 임애리 2008: 21). 문장 및 절의 길이는 편의상 5어절 이하, 6-10어절, 11-15어절, 16-20어절, 21-25어절, 26-30어절, 31어절 이상으로 분류한다.

#### 3.2.1. 관형절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하는 절로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

미 ‘-는, -(으)나, -(으)르, -던’ 등을 취한다(나찬연, 2007: 82; 남기심 2001: 240). 관형절은 그것이 수식하는 중심어와의 문법적 관계에 따라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이 있다<sup>11)</sup>.

### 3.2.2. 명사절

명사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절이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명사형 어미인 ‘(으)고, -기’가 실현되어 만들어 진다(나찬연 2007: 80). 명사절은 이외에도 ‘-느/(으)냐, -는가/(으)냐, -는지/(으)냐지’ 등의 어말어미로 끝난 의문형의 명사절, ‘-것 명사절’<sup>12)</sup>이 있다. 명사절은 일반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충어 및 부가어가 될 수 있다(남기심 2001: 214).

의존 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절 및 관형절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sup>13)</sup>.

### 3.2.3. 인용절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따온 절인데 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에 따라 직접인용절과 간접인용절로 나뉜다. 직접인용

- 
- 11) 관계관형절은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은 사람은 김 포수였다’와 같이 관형절 속의 문장 성분 가운데에서 중심어와 동일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서 형성된 관형절이다. 동격관형절은 ‘그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확정하였다’와 같이 중심어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장 성분도 생략되지 않은 관형절이다(나찬연 2007: 83-84).
  - 12) ‘-것’ 명사절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관형절로 처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 뒤에 ‘것’이 결합되어서 전체 구성이 명사처럼 기능하는 경우는 남기심(2001: 213-223)을 따라 명사절로 보기로 한다. 한편 김혜영(2010: 140-141)에서도 ‘것’ 명사절을 관형절로 처리하고 있는데, 번역문에서 ‘-것’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비번역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 13) ‘저는 내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찍 가야 하겠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형식상으로는 명사절로 구분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의존명사 ‘때문’과 함께 쓰여서 종속적 연결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유현조 2008: 18-21). 이같이 명사절이나 관형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김일웅(1993: 250)과 서정수(1996: 1190)에서 이미 제시되었다(나찬연 2007: 106에서 재인용). 본고에서도 의존명사 앞의 절은 접속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보고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보지 않는다. 즉 관형절은 자립명사를 수식하는 것만 포함하고, 의존명사 앞의 관형절, 명사절은 제외하기로 한다.

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인용절로서 ‘-라고’가 붙어서 성립하고, 간접인용절은 말을 전달하는 이의 입장에서 형식을 바꾸어서 표현하며 ‘-고’가 붙어서 성립한다(나찬연 2007: 93).

인용절을 안은 문장은 판단, 주장 등을 따올 때도 성립한다. 즉 ‘나는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다’와 같이 말하는 이가 자신이나 남의 생각이나 판단, 주장 등을 인용하여 표현하는 것도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생각하다, 주장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제의하다, 믿다……’ 등도 문법적인 형식만 갖추면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다(ibid. 95)<sup>14)</sup>.

#### 3.2.4. 부사절 및 접속절

부사절도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부사절의 지표인 부사형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남기심 2001: 253). 부사절을 형성하는 문법 형태소는 ‘-듯이, -게, -도록, -아서/-어서, -(으)면’ 등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학자에 따라 이를 종속적 연결어미로 보기도 한다(ibid. 253-254; 나찬연 2007: 104-105; 유현조 2008: 15-17). 이처럼 부사절과 접속절의 구분은 많은 논란이 있어 본고에서는 부사절 및 접속절을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지 않고 묶어서 보기로 하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사절과 접속절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고등학교 교사용지도서 문법(2006: 201)에서는 대등절까지도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나찬연 2007: 87에서 재인용). 대등접속절을 만드는 어미는 일반적으로 ‘-고, -(으)며, -든지, -거나, -(으)나, -는데’ 등이 거론된다(ibid. 99-100). 그러나 이은경(2000)에서는 이를 단순히 형태로 파악할 수 없으며, 절과 절 사이의 통사적인 특성과 의미적 관계를 반영하여 통사·의미적 관계가 독립적이면 대등접속절로 볼 것을 주장한다(300-303). 즉, ‘-고’가 있어도 나열, 대조, 선택 배경의 의미가 아니면 부사절(혹은 종속적 연결어미)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가방을 열고 책을 꺼냈다’에서의 연결 어미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아닌 종속적 연결어미로 본다. 유현조(2008: 13) 역시 대등접속절과 종

14) 인용형 어미가 있다고 항상 인용절은 아니다. 조동사 구성(‘만났다고 하자’), 접속절(‘간다고 신났다’) 등에서도 ‘다고’가 쓰이지만 이 경우는 인용절이 아니다(유현조 2008: 20). 또한, 인용절은 부사절로 분류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유현조(ibid. 17)을 따라 별도로 분류한다.

속접속절 구성의 구분은 후행절에 대한 선행절의 의미가 대등적인가, 종속적인가에 따르는데, 구분의 기준이 의미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장이 세 개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경우 구조적 중의성이발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절의 길이를 정하기가 모호하다<sup>15)</sup>.

위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부사절과 접속절은 번역서와 비번역서간 직접적으로 상호 비교하지 않고, 분류가 비교적 명확한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을 문장에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외 본 연구에서 절의 분류 및 길이 설정에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의 내포절 안에 다시 내포절이 있는 경우에는 더 지배적인 내포절, 즉 더 큰 내포절의 어절 수를 세기로 한다. 본 연구는 내포절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긴 내포절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2. 본고에서는 긴 절을 중심으로 가독성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어절의 수가 하나인 절(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sup>16)</sup>.
3.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 내포절의 주어는 어절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텍스트마다 띄어쓰기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 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한다. 예를 들어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박용옥 외 2009: 13) 본고에서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으로 한다. 또,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되나(ibid. 22) 본고에서는 띄어 쓰는 것으로 한다. 기타 띄어쓰기 방식은 『국어 띄어쓰기 편람』(박용옥 외 2009)를

15) [토스트를 먹으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있다]. 먹다=듣다=읽다  
 [[토스트를 먹으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있다]. 먹다=듣다>읽다  
 (유현조 2008: 28)

위 예는 하위절이 나타내는 행위를 동시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토스트 먹으면서’ 절의 결합 위치가 다르게 파악된다(ibid.).

16) 또한 어절 수가 하나인 경우, 절이 아니고 용언의 관계사형일 때도 있다(남기심 2001: 243).

따른다.

5. 절의 범위가 중의적일 수 있을 때는 절의 길이가 짧은 것을 선택한다<sup>17)</sup>.
6. 비문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번역서는 대체로 비번역서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더 길었다. 각 내포절 별로 보면, 관형절의 경우 번역서에서 긴 관형절이 더 많았다. 명사절과 인용절은 번역서에서 뚜렷이 더 길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문장에서 관형절, 명사절, 인용절의 어절수를 빼서 비교한 부사절(혹은 접속절)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어절 수가 25어절 미만인 부사절/접속절은 비번역서에서 더 많았으나, 그 이상의 긴 경우는 비번역서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더 자세히 아래에 살펴본다.

##### 4.1. 문장 길이

〈표 3〉 문장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문장개수
비번역서(A)	378(21.3%)	114(6.4%)	45(2.5%)	21(1.2%)	12(0.7%)	1775
번역서(B)	399(27.3%)	118(8.1%)	74(5.1%)	29(2.0%)	11(0.8%)	1461
B/A	1.28	1.26	2.00	1.68	1.10	

- 17) 베스는 수줍음을 잘 타고 순한 목소리에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 아가씨였다. (시공주니어 2007: 16)

위 문장은 ‘베스는 수줍음을 잘 탄다.’와 ‘베스는 순한 목소리에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 아가씨였다.’의 두 개 문장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수줍음을 잘 타고 ....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 절이 ‘아가씨’를 꾸미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같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절이 짧아지는 경우로 선택한다. 따라서 위 문장은 ‘베스는 수줍음을 잘 탄다.’와 ‘베스는 순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 아가씨였다.’의 두 개 문장으로 보고 관형절은 ‘순한 목소리에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표정을 가진’으로 보기로 한다.

〈표 4〉 비번역서의 학년별 문장 길이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초5학년	99	27	6	3	1
초6학년	87	18	6	1	1
중1학년	105	32	7	6	5
중2학년	87	41	23	11	5

<표 3>과 같이 번역서의 문장 길이가 더 길었다. 예컨대, 비번역서의 경우 16-20어절이 되는 문장이 전체의 약 6.4%인데 비해 번역서는 8.1%이다. 21-25어절, 26-30어절, 31어절 이상의 문장을 비교할 때도 번역서에서 모두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여기서 번역서의 문장길이가 긴 것을 영어 원문이 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번역서를 ST와 비교했을 때 번역서에서 ST의 문장을 분할한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로빈슨 크루소』는 원문이 매우 길지만 번역서에서는 문장을 빈번하게 분할하였다(성승은 2010: 159-177).

<표 3>과 같이 긴 문장이 비번역서에 비해 번역서에서 더 많다는 것은, 번역서에서 아동 독자를 위해 ST의 긴 문장을 분할하였으나 국어 교과서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문장이 여전히 길다는 의미이다. 물론 문장 길이는 저자 혹은 역자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문장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를 가독성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김한식 2007: 280-282; Scott & Stokes 1995: 310-311; Cutts 1995: 11; 김기중 1993: 127-128).

비번역서의 경우 <표 4>와 같이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긴 문장이 많아진다.

(예3)

아버지 몸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싫었고, 친구들이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보는 게 싫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 입에서는 마치 대사 연습이라도 한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창피하다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6-1 국어 2010: 138-139)

초등학교 5, 6학년의 국어 교과서에는 위 예문과 같은 31어절 이상의 긴 문장이 각각 1회씩만 발견되었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위 예문을 부사절 및 접속절을 중심으로 보면 ‘-었고 -지만 -는데 -이다’의 구조이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각각 3어절인 관형절과 6어절의 명사절이 있다.

아래 문장은 번역서의 예이다.

(예4)

Mrs. Lippett overlooked the fact that Jerusha had worked hard for her board during those two years, that the convenience of the asylum had come first and her education second; that on days like the present she was kept at home to scrub. (Webster 1912/1995: 6)

리펫 원장은 체루샤가 지난 2년 동안 먹여 주고 입혀 주는 대가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과 공부보다는 고아원의 일이 늘 우선이어서 오늘 같은 날에는 아예 학교도 못 가고 아이들 치다꺼리를 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있었다. (비룡소 2003a: 15)

위 예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2개의 관형절이 있는 긴 문장이다. ST에 세미콜론이 있는 경우 TT에서 문장을 분할하기도 하지만<sup>18)</sup> 위 예에서는 한 개의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으로 번역서와 비번역서 간 문장 길이를 살펴보았다. 번역서는 비번역서보다 긴 문장이 더 많았다. 문장이 길어지면 그 안의 절도 길어지고 또 그 수가 많아지기도 하여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기 쉽다.

#### 4.2. 관형절

앞서 문장 길이는 텍스트 전체의 문장의 개수 대비 특정 어절수의 문장 개수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포절의 비교는, 전체 내포절의 개수 대비 특정 어절 수에 해당하는 내포절을 비교하지 않고, 문장 안의 절이 길어지면 문장 처리에 부담이 된다는 면에서 내포절의 길이 자체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18) 세미콜론 등 문장 부호의 번역에 대해서는 김도훈(2008)을 참조.

〈표 5〉 관형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35
비번역서(A)	24	4	0	0	0
번역서(B)	34	11	0	2	1
B/A	1.42	2.75	-	-	-

〈표 6〉 비번역서의 학년별 관형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초5학년	5	0	0	0	0
초6학년	5	1	0	0	0
중1학년	6	2	0	0	0
중2학년	8	1	0	0	0

〈표 5〉와 같이 번역서에는 비번역서에 비해 긴 관형절이 더 많았다. 특히 16-20어절의 관형절은 번역서에서 확연히 더 많았고(B/A=2.75), 21어절 이상의 긴 관형절은 번역서에서만 발견되었다. 〈표 6〉과 같이 비번역서 중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관형절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5)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중 1-1 국어 2010: 109)

위 예는 ‘[그런 시간에는]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다’는 문장이 더 큰 문장에 관형절로 안겨 있다.

비번역서에서는 21어절 이상 되는 긴 관형절은 발견되지 않았고, 번역서에서는 3개의 예가 있었다. 이같은 긴 관형절은 대체로 ST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때 나타났다. 아래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6)

공동주택은 막다른 골목 끝에 위치한 어두침침한 건물로, 내부에는 킁킁한 방들이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인적이 어찌나 드물던지 그 건물을 보고 있노라면 먼 옛날 그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었을 때, 주위의 다른 건물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며 숨어들었다가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그곳에 영원히 자리 잡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룡소 2003b: 32)

위의 밑줄 친 부분은 31어절 이상의 긴 관형절로 아래 ST의 밑줄 친 ‘so... that’ 구문의 ‘that’ 이하 절을 ST의 구조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한 결과이다.

They were a gloomy suite of rooms, in a lowering pile of building up a yard, where it had so little business to be, that one could scarcely help fancying it must have run there when it was a young house, playing at hide-and-seek with other houses, and have forgotten the way out again.

(Dickens 1843/1977: 17)

또 다른 예를 보자.

(예7)

아니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이를테면 시냇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이라든가 집 앞을 지나는 것을 무엇이든지 꼼꼼히 살피고 색다르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보면 그 까닭을 확실하게 알아낼 때까지 가만있지 않으리란 점<sup>19)</sup>을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시공주니어 2002: 10)

위 내용은 『빨간 머리 앤』에서 린드 부인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히 모두 꿰뚫고 있음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위 예는 ST의 ‘that’ 이하의 명사절

19) 네이버 사전을 보면, ‘점’은 관형사 뒤에 온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자립명사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이주행 2009: 111-135)에서도 의존명사로 헷갈릴 수 있으나 자립명사로 구분되어야 하는 어휘로 분류하고 있다. 또, 만약 ‘점’을 가령 ‘것’과 같은 의존명사로 본다 해도 위의 절은 명사절에 속하므로 여전히 내포절이 된다. 본 연구에서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구분은 이 책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 긴 관형절로 번역된 것이다.

... it probably was conscious that Mrs. Rachel was sitting at her window, keeping a sharp eye on everything that passed, from brooks and children up, and that if she noticed anything odd or out of place she would never rest until she had ferreted out the whys and wherefores thereof.

(Montgomery 1908/1998: 1)

영어의 문장 구조는 SVO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that’이하의 절이 길어지더라도 문장을 처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를 한국어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정보가 너무 많아져 작업 기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관형절이 긴 경우는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김기중 1993: 127; 김한식 2009: 154-158). 관형절이 길어지면 문장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김영진, 조명한 1981: 16). 즉, 피수식어가 나올 때까지 긴 수식절을 작업 기억에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효석(2010: 221-222)은 한국어에서는 상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때는 관형절을 쓰지 않고 연결 어미를 붙여서 상황을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형어를 없앨 때는 피수식어 뒤로 보내 부사어, 서술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번역가 이종인(2009: 136-141) 역시 번역문에서 수식어를 자제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빨간머리 앤』의 한 축약본에는 위 부분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예8)

왜냐하면 린드 부인은 창가에 앉아 시냇물에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일에 참견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했다. (효리원 2004: 8-10)

위 예문에서는 (예7)의 긴 관형절의 내용 중 일부는 관형절로 처리하였고 일부 내용은 새로운 문장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로써 관형절이 훨씬 짧아졌고 문장 길이 역시 짧아졌다. 축약본은 대체로 완역을 읽기에는 어린 아동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대상 연령보다 더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문장 및 절을 짧게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으로 관형절이 긴 문장을 살펴보았다. 아동대상 번역서는 해당 연령대의 국어 교과서에 비해 훨씬 긴 관형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4.3. 명사절

〈표 7〉 명사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35
비번역서(A)	12	3	0	0	0
번역서(B)	5	0	1	0	0
B/A	0.42	-	-	-	-

〈표 8〉 비번역서의 학년별 명사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초5학년	1	0	0	0	0
초6학년	1	0	0	0	0
중1학년	4	2	0	0	0
중2학년	6	1	0	0	0

명사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형절보다 그 수가 더 적었다. 11-15, 16-20 어절의 명사절은 번역서에서 더 많았으나, 21-25어절의 긴 명사절은 번역서에서 1회 발견되었다. 또한 비번역서의 경우 16어절 이상의 명사절은 모두 중학교 1,2학년 교과서에서만 발견되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이같이 긴 명사절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과 같이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긴 명사절이 더 많았다.

우선 가장 긴 명사절은 번역서에서 발견되었다.

(예 9)

어느 날 선생은 나를 한켠으로 데려가더니, “외다리 뱃사람이 나타나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다가” 보이는 즉시 자기한테 알려 준다는 조건으로 매달 첫째 날 4페니짜리 은화 한 닢을 주기로 약속했다.

(비룡소 2003c: 19)

위의 예에서는 ST의 ‘promise’의 목적어 부분이 번역문에서 긴 명사절로 처리되었다.

He had taken me aside one day, and promised me a silver four penny on the first of every month if I would only keep my ‘weather-eye open for a seafaring man with one leg’, and let him know the moment he appeared. (Stevenson 1883/1994: 5)

또 다른 아동 대상 번역서에서는 위 ST를 다음과 같이 인용절로 번역하였다.

(예10)

어느 날 선장이 나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외다리 뱃사람을 보는 즉시 자기에게 알려주면 매달 첫째 날에 4페니 은화를 한 닢씩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루별 2009: 5-6)

위 두 가지 예 모두 ST에서 ‘promise’ 이하의 절을 하나의 절로 번역하였는데, 영미명작을 완역하지 않고 편역한 초등 고학년용 도서에는 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예11)

어느 날 선장은 나에게 외다리 뱃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외다리가 나타나면 바로 알려라. 그러면 매달 첫째 날 은화 한 닢을 주마.” (대교출판 2007: 14)

위의 예에서는 선장이 주인공인 ‘나’에게 직접 말을 하는 직접 인용으로 쓰여서 각 문장이 짧아졌다. 앞서 본 축약본 (예8)과 같이 여기에서도 축약본에서는 문장 및 절이 더 간결하다.

위의 (예9) 다음으로 긴 명사절, 즉 16-20어절 사이의 길이는 모두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예12)

괜히 말쟁이나 부리고 편둥편둥 놀면서 삼시 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통  
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  
다. (중 2-1 국어 2010: 154)

위 예에서는 긴 명사절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처럼 16-20어절의 비교적 길이가 긴 명사절이 있었으나,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더 짧은 11-15어절 사이의 명사절도 각각 1회씩만 발견되어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의 절의 길이가 더 짧음을 알 수 있다.

명사절의 길이 비교를 정리하면, 20어절 이하의 명사절은 번역서에서 더 적었으나, 번역서에는 21-25어절의 긴 명사절이 1회 발견되었다.

#### 4.4. 인용절

〈표 9〉 인용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35
비번역서(A)	2	2	0	0	1
번역서(B)	9	1	0	1	0
B/A	4.50	0.50	-	-	-

〈표 10〉 비번역서의 학년별 인용절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초5학년	1	0	0	0	0
초6학년	0	1	0	0	0
중1학년	1	1	0	0	1
중2학년	0	0	0	0	0

〈표 9〉와 같이 11-15어절의 인용절은 번역서가 더 많았으나, 16어절 이상의 더 긴 인용절은 양측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번역서 중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31어절 이상의 매우 긴 인용절이 있었다. 그러나 〈표 10〉을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긴 인용절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번역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인용절은 아래와 같다.

(예13)

복잡한 인생의 길에서 이리 비집고 저리 비집고 해서 제 갈 길을 헤치고 살아가려면 인간적인 동정심 따위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이치에 밝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실속’이라고 스크루지는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시공주니어 2003: 13)

위의 인용절에는 다시 ‘복잡한 ...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의 긴 명사절이 안겨 있으며, 이 명사절 안에는 또 다시 ‘복잡한 ... 헤치고 살아가려면’이라는 부사절(혹은 접속절)이 안겨 있다. 이처럼 내포절이 길어지면 그 결합관계도 복잡해지면서 가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 예문에서 인용절이 길어진 것은 아래 ST의 밑줄 친 부분을 번역문에서 분리하지 않고 유지한 결과이다.

To edge his way along the crowded paths of life, warning all human sympathy to keep its distance, was what the knowing ones call 'nuts' to Scrooge. (Dickens 1843/1977: 6)

(예13)과 같은 문장을 성인이 읽어 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읽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이 될 수 있다. 한 축약본에는 이 부분이 아래와 같았다.

(예14)

복잡한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면 공연히 값싼 동정심 따위는 일찌감치 내버려야 한다는 게 스크루지의 철칙이었다. (지경사 2005: 15)

위 문장은 완역서인 (예13)의 문장과 유사하나 ‘세상 이치에 밝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실속’이라고’ 부분이 빠졌고, 어휘 수를 크게 줄여서 내포절의 길이를 더 짧게 하였다.

한편 아래 예는 비번역서에서 가장 긴 인용절이다.

(예15)

지랄스런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 재수 나쁜 아가

선들 그 재수 나쁜 아저씨한테 떼를 쓸 밖에 도리 없지 않겠냐고 사람들은  
은 썩덕했다. (중 1-1 국어 2010: 96)

위 예는 중 1 교과서에서 발췌되었는데, 문장의 중간 중간에 쉼표가 있어서 글을 읽어 가는데 쉬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학년 교과서에도 16-20어절 사이의 비교적 긴 인용절이 있었다.

인용절의 길이 비교를 정리하면, 번역서와 비번역서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용절은 인용을 나타내는 동사 및 생각, 판단 등을 나타내는 동사 등 특정 서술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므로, 텍스트의 구성에 따라 그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긴 인용절로 26-30어절의 인용절이 번역서에서 1회 발견되었다.

#### 4.5. 부사절 및 접속절

우리는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부사절과 접속절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문장에서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을 제외한 부분으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어절의 문장에 3어절의 관형절과 4어절의 명사절이 있으면, 이 문장의 부사절 및 접속절은 20에서 7을 뺀 13어절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13어절의 문장은 부사절, 대등접속절 및 종속접속절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표 11〉 부사절 및 접속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35
비번역서(A)	221(12.5%)	51(3.0%)	14(0.8%)	4(0.3%)	2(0.1%)
번역서(B)	280(19.2%)	74(5.1%)	14(1.0%)	1(0.1%)	0(0%)
B/A	1.54	1.70	1.25	0.33	-

〈표 12〉 비번역서의 학년별 부사절 및 접속절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초5학년	57	13	2	0	0
초6학년	40	5	0	0	0
중1학년	68	11	5	1	1
중2학년	56	22	7	3	1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을 뺀 부사절 및 접속절을 포함한 문장은, <표 11>과 같이 어절 수가 25어절 이하인 경우 번역서에서 약간씩 더 많고, 그 이상의 긴 문장은 비번역서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약 25어절까지는 번역서에서 부사절 및 접속절이 더 긴 것은 <표 3>과 같이 번역서가 비번역서에 비해 긴 문장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텍스트 전체적으로는 번역서의 문장 길이가 더 길지만, 비번역서에서 26어절 이상의 부사절 및 접속절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효석(2010)은 한국어에서는 문장이 길어도 긴 관형절 등을 사용하기보다 연결어미를 붙이면 뜻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221-222), 비번역서에서 긴 부사절 및 접속절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비번역서에서 이러한 방식의 문장 기술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장 길이가 대체로 짧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sup>20)</sup>에도 21어절 이상의 부사절 및 접속절이 있었다.

## (예16)

집안이 넉넉하거나 운동을 잘 해 거기서 얻은 인기로 반장이 되는 수도 있었으나, 대개는 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이 결정되었고, 그 구실도 반장이라는 명예를 빼면 우리와 선생님사이의 심부름꾼에 가까웠다.

(5-1 국어 2009: 12)

위 문장은 밑줄 친 부분의 짧은 관형절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으나 -지만 -면 -다’로 이루어져 부사절 및 접속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위 문장은 긴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이 있어서 문장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부사절/접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번역서에서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긴 문장은 다음과 같다.

## (예17)

존은 비둘기 목을 비틀고 공작 새끼를 죽이고, 양 떼에게 개들을 풀어 놓고, 온실의 덩굴 식물에서 열매를 다 따 버리고, 집에 딸린 유리 온실에서

20) <표 4> 참조.

가장 좋은 식물의 싹을 잘라 버려도, 벌을 받기는커녕 말리는 사람조차 없었다. (시공주니어 2005: 28)

위 문장은 밑줄 친 관형절 6어절을 제외하고도 28어절이 되는 긴 문장으로 ‘-고 -고 -고 -고 -(어)도 -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아래 ST 문장을 번역한 것인데, ST 역시 접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John, no one thwarted, much less punished; though he twisted the necks of the pigeons, killed the little pea-chicks, set the dogs at the sheep, stripped the hothouse vines of their fruit, and broke the buds off the choicest plants in the conservatory ... (Bronte 1847/1964: 17)

이제 위와 같이 ST의 문장 자체가 접속절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TT를 부사절 및 접속절로 번역한 예를 살펴보자.

(예18)

ST: ... and the strange little figure there gazing at me, with a white face and arms speckling the gloom, and glittering eyes of fear moving where all else was still, had the effect of a real spirit; (Bronte 1847/1964: 16)

TT1: 모든 것이 정지된 그곳에서 낯선 어린아이가 어둠이 점점이 물든 팔과 하얀 얼굴을 하고, 겁에 질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나를 뵈며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 유령 같은 느낌이었다. (시공주니어 2005: 27)

TT2: 파리한 얼굴을 하고 팔을 어둠 속에 번뜩이면서 모든 게 괴괴한 속에 또랑또랑 공포의 눈알만을 움직이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울 속의 기묘한 모습은 정말 도깨비처럼 보였다. (민음사 2004: 21)

위에서 TT1이 ST의 밑줄 친 부분을 부사절/접속절로 번역한 예이다. ST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figure’를 묘사하고 있는데, TT2는 ST의 구조처럼 밑줄 친 ‘-고 -면서 (-에)21) -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의 관형절이 ‘모습’을

21) 괄호를 한 이유는 ‘모든 게 괴괴한 속에’의 ‘-에’는 조사이므로 부사절/접속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꾸미고 있다. 반면 TT1은 이 부분이 ‘(-에서) -고 -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로 부사절/접속절로 처리되어 있고, ST의 긴 주어절과 서술어를 분리해서 번역하였다.

김한식(2009: 157)은 ST의 대등절, 부사절 등은 번역할 때 문장을 분리하여 간결하게 만들기가 더 쉽지만 관형절을 내포한 구문을 분리해서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ST의 긴 관형절을 TT에서 그대로 유지하면 번역문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ST의 긴 절을 TT에서도 긴 관형절/명사절/인용절 등으로 번역하면 문장이 빨리 마감되지 않아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 4.6. 종합

이번에는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의 내포절을 모두 묶어서 번역서와 비번역서를 비교해 본 결과 <표 13>과 같이 번역서에서 긴 내포절이 더 많이 있었다. 이처럼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의 내포절을 묶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예9)와 (예 10)에서 동일한 ST의 절을 각각 명사절과 인용절로 번역한 것처럼 동일한 ST의 절을 TT에서는 각각 다른 내포절로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13> 비번역서와 번역서의 관형절/명사절/인용절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비번역서	관형절	24	4	0	0	0
	명사절	12	3	0	0	0
	인용절	2	2	0	0	1
	합(A)	38	9	0	0	1
번역서	관형절	34	11	0	2	1
	명사절	5	0	1	0	0
	인용절	9	1	0	1	0
	합(B)	48	12	1	3	1
B/A		1.26	1.33	-	-	1

위 표와 같이 번역서에서 긴 내포절이 더 많았다. 특히 번역서에서는 21어절 이상의 내포절이 5회 발견되어 1회인 비번역서와 차이를 보였다. 내포절의

길이 20어절 이하인 경우에도 번역서에서 내포절의 수가 더 많았다.

또한, 아래 <표 14>, <표 15>와 같이 본고의 영미명작 번역서의 문장 및 절의 길이는 초등학교 5,6학년 보다는 중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와 더 유사하다. 예를 들어 <표 14>를 보면 번역서에서는 전체 문장 개수 중에서 21-25어절의 문장의 비율이 약 5.1%인데 비번역서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은 그 비율이 6.2%, 중학교 1학년은 1.7%, 초등학교 5,6학년은 모두 1.2%이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 21-25어절의 비율이 번역서의 5.1%와 더 근접하다. 그리고, <표 15>와 같이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명사절/관형절/인용절이 긴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학년별 비번역서와 번역서의 문장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문장 개수
비번역서	초5학년	99	27	6(1.2%)	3(0.2%)	1(0.2%)	485
	초6학년	87	18	6(1.2%)	1(0.2)	1(0.2%)	497
	중1학년	105	32	10(1.7%)	6(1.4%)	5(1.2%)	424
	중2학년	87	41	23(6.2%)	11(3.0%)	5(1.4%)	369
번역서		399	118	74(5.1%)	29(2.0%)	11(0.8%)	1461

<표 15> 학년별 비번역서와 번역서의 관형절/명사절/인용절 길이 비교

	어절수	11-15	16-20	21-25	26-30	31 이상
비번역서	초5학년	7	0	0	0	0
	초6학년	6	2	0	0	0
	중1학년	11	5	0	0	1
	중2학년	14	2	0	0	0
	합	38	9	0	0	1
번역서		48	12	1	3	1

## 5. 결론

본고의 분석 결과, 번역서에서 긴 문장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즉 성승은

(2010)에서 동일한 ST에 대해 아동 및 성인대상 번역서를 비교한 결과 아동 대상 번역서에서 유의하게 문장을 더 분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비번역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아동대상 번역서의 문장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번역서와 번역서의 내포절을 비교한 결과, 번역서는 긴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이 더 많았다. 관형절은 특히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번역서에서는 비번역서에 비해 긴 관형절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번역서보다 비번역서에서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을 제외한 부분인 부사절 및 접속절이 긴 경우가 더 많았다. 이것은 결국 번역서에서는 문장 내에 긴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이 더 많고, 비번역서에서는 긴 부사절 및 접속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부사절 및 접속절로 풀어써야 이해하기 쉽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비번역서에서 이러한 구문이 더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고찰한 영미명작의 원역은 문장의 길이 및 관형절/명사절/인용절의 길이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5,6학년보다 중학교 1,2학년의 국어 교과서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장과 절의 길이에 익숙한 아동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국어 교과서와 비교한 결과를 기반으로 할 때, 초등학교 5,6학년 및 그 이하 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는 문장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내포절, 특히 관형절을 길지 않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8)와 같이 관형절을 더 짧게 하거나, (예18)과 같이 부사어 및 종속절로 처리하는 경우 문장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물론 모든 아동에게 긴 문장과 긴 내포절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아동에 따라 글의 이해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연령대의 국어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아동에게 수용되는 번역을 고찰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번역서의 문장이 길어지는 현상을 번역에서의 외연화(explicitation)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ST에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TT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외연화인데, 이러한 외연화의 발현으로 번역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 Klaudy(1998)는 외연화를 의무적 외연화, 선택적 외연화, 화용적 외연화 및 번역 내적 외연화로 분류한다. 아동문학 번역에서도 외연화 현상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있다(Stolze 2003: 209; 신지선 2005: 109-141; Frank 2007: 157-161; Shih 2008). 그러나 본고에서는 외연화로 인해 번역문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찰하지 않았다. 우선 본고의 분석대상 텍스트에서는 ST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화용적 외연화의 결과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없었다. 본고는 번역서의 문장 및 절이 길어지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본 것이므로 선택적 외연화 및 번역 내적 외연화(cf. 김정우 2009)의 발현으로 번역문이 길어지는 경우는 별도의 연구 대상이다.

본고는 분석대상 텍스트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분량이 늘어나거나 텍스트의 구성이 달라진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동일 연령대 아동 대상의 비번역서와 비교함으로써 번역서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이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절의 길이 이외에도 한 문장 안의 절의 수와 절의 결합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부사절 및 접속절과 관련된 가독성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도훈 (2008)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장부호의 전이 양상 및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 Colon, dash, semicolon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순 (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신연, 최재선 (2001) 『아동문학의 이해와 활용』, 서울: 민속원.
- 김영진, 조명한 (1981) 「이해를 위한 문장 처리에서 통사 요인과 의미 요인」, 『어학연구』 17(1): 1-21.
- 김영진 (1995) 「한국어 관계절 문장의 이해 과정과 구조」, 『인지과학』 6(2): 5-26.
- 김정우 (2009)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

- 와 관련하여-], 『번역학 연구』10(3): 77-95.
- 김한식 (2007) 「신문기사의 문장길이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독이성 제고를 위한 번역전략의 관점에서」, 『통번역학 연구』 10(2): 69-84.
- 김한식 (2009) 「문장 구조의 복잡성과 독이성에 관한 고찰-한일 양국의 신문기사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12(2): 145-159.
- 나찬연 (2007) 『학교 문법의 이해: 문장』, 서울: 재이앤씨.
- 남기심 (2001) 『현대국어통사론』, 서울: 태학사.
- 문용 (2008) 『고급영문법해설』, 서울: 박영사.
- 성승은 (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성인대상 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옥 외 (2009) 『국어 띄어쓰기 편람』, 춘천: 강원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웬스 (2005) 이승복, 이희란 옮김. 『언어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현조 (2008) 「한국어 복합문의 통사와 의미: 질 단위 계층 구조에 관한 말뭉치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원 (2011)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시스템에 대한 검토: 성과와 과제」, 한국연구재단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의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결산 심포지움 발표논문, 49-53.
- 이성은 (2003) 『아동문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행 (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종인 (2009) 『번역은 글쓰기다』, 서울: 즐거운 상상.
- 임원재 (2000) 『아동문학교육론』, 서울: 신원문화사.
- 임성규 (1993) 「교재 기술에서의 글의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한국 초등국어 교육』 9(1): 265-286.
- 최광렬 (2003)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집필요령」, 강주현, 이권우, 최성일, 한기호, 한미화 (편저) 『북페덱 03-청소년 출판』 (222-231),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한혜선 (2000) 『아동문학 창작론』, 서울: 푸른사상.
- 한효석 (2010)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서울: 한겨레 출판.
- Beaman, K. (1984)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revisited: Syntactic

- complexity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 discourse', in D. Tannen, & R. Freedle (Eds.) *Coherence i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45-80), Norwood, NJ: Ablex.
- Cutts, M. (1995) *The Plain English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 H. (2007). *Cultural encounter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Manchester: St. Jerome.
- Klaudy, K. (1998) 'Explication', in M. Baker & K. Malmkjær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80-85),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uurttinen, T. (1997) 'Syntactic norms in Finnish children's literature', *Target* 9(2): 321-324.
- Scott, C. & Stokes, S. (1995) 'Measures of syntax i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6: 309-319.
- Shih, C. (2008) 'Corpus-based study of differences in explication between literature translations for children and for adults', *Translation Journal* 12(3).  
Retrieved March 21, 2009 from  
<http://translationjournal.net/journal//45explicit.htm>
- Stolze, R. (2003). 'Translating for children-World view or pedagogics?' *Meta* 48(1-2): 208-221.

<참고 사이트>

<http://www.natmal.com/>

<http://www.lexile.com/research/9/>

<예문 제시에 사용된 도서>

이주령 옮김 (1996)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서울: 시공사.

우연정 엮음 (2007) 『보물섬』, 서울: 대교출판.

- 이상교 편역 (2004) 『빨간 머리 앤』, 서울: 효리원.  
유중호 옮김 (2004) 『제인 에어』, 서울: 민음사.  
한상남 엮음 (2005) 『크리스마스 캐럴』, 서울: 지경사.

[Abstract]

## **Sentences and Clauses i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s in Comparison with Non-translations**

Sung, Se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adability of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s in terms of sentences and clauses. To this end, English-Korean translations are compared with non-translations. The age bracket of children for this study is about 11-14.

In a recent study which compared translations for children and adult readers, children's translations had significantly more sentences segmented and simplified sentence structure of the source texts(Sung 2010). This paper seeks to gauge such differences against non-translated books for children. If children's translations have shorter sentences and simpler structure, they then need to be compared with non-translations as a part of efforts to find out how they are accepted by childre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length of clauses and sentences between translations and non-trans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anslations had longer sentences and determinative claus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translations, with their longer sentences and clauses, are more similar to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junior high school than those of elementary school. Strategies to enhance readability in terms of syntax are also discussed.

▶ Key Words: readability,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s, sentences, clauses, non-translations

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영어통번역학부 강사

michsung@hotmail.com

관심분야: 아동문학번역,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1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